

조이스와 여성

이 인 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전기를 쓴 리차드 엘만(Richard Ellmann)에 따르면, 조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서구 문화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조이스의 인식이 카톨릭 교회가 설정한 성처녀와 창녀의 대극적인 여성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조이스에게 있어 여성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면 요부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인물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묘사를 두고 많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그것이 그의 남성중심주의적 편견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태도를 분석하였던 샌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는 그의 글쓰기가 여성혐오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제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남성중심주의 작가의 전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이스에 관한 권위있는 전기의 기록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비판에 따르자면 그는 남성중심주의적인 작가임에 분명하다. 그는 당시 사회의 통념에 맞추어 여성을 재단하고 심지어 비하하기도 한 작가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조이스에 관한 대부분의 평가들이 일방적이지 않은 사실에 비기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정적이다.¹⁾ 본고는 그의 여성관을 평가할 때는 여

성 인물들의 묘사나 글쓰기 태도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역사적 상상력을 반드시 거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의 여성관은 그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평가 되기보다는 그가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여 비판하고자 한 태도의 소산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더 많이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전기의 기록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여성관을 사회비판의 측면에서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1. 조이스의 여성혐오와 전통적인 여성상

엘만은 조이스가 프랭크 버전(Frank Budgen)과 대담하면서 여성의 존재를 폄하한 사실을 언급하였다(Ellmann 634). 조이스는 버전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뒤떨어진 기능([the function] which is biologically preempted)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남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데다, 심지어 그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도 질시하며 위협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여성이 음악, 미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성취한 일들도 있지만 완벽한 철학적 체계를 갖춘 저서를 썼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친구 메어리 칼럼

1)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이스의 여성관은 달리 해석되어 왔다. 그 성향은 대체로 영미 계통의 학풍과 프랑스 계통의 학풍으로 대별되는데, 영미 계통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을 근거로 하고, 프랑스 계통에서는 기호학, 후기구조주의 등을 비평적 토대로 하여 그의 여성관을 평가한다(Roughley 78). 프랑스 계통에서는 그를 남성중심적 글쓰기의 전통을 해체 한 작가로 보기도 하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그가 여성해방론자로 인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 경향간의 갈등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마친다.

(Mary Colum)과 별인 언쟁에서 그녀에게 ‘나는 뭔가를 안다고 하는 여자들을 몹시 싫어해’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그녀에게 그의 여자 친구들을 비꼬는 시를 읊어 주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가 여성혐오적인 작가로 간주될 수 있을 소지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들에서는 그가 여성을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작품 속에 지적인 여성의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수많은 여성 인물들 중 지적인 여성으로는, 대학생인 에머 클리리(Emma Clery)와 『유랑인들(Exiles)』에 등장하는 음악 선생 비어트리스 저스티스(Beatrice Justice). 그리고 “죽은 사람들(The Dead)”에 등장하는 몰리 아이버즈(Molly Ivors)가 고작이다. 게다가 그들은 제대로 묘사되고 있지도 않아서 여성에 대한 그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에머는 조이스의 습작인 『스티븐 히어로(Stephen Hero)』에서 ‘살아 있는 인성을 가진 존재(Spencer 12)’라기보다, 수줍어하며 관습에 얹매인 모습만을 보이는, ‘살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없는 존재(Benstock 11)’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는 이름조차 ‘E—C—’로 감쇄되어 버리는 데다 ‘실질적으로 이름 없는 한 소녀(Spencer 12)’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비어트리스는 1막에서 사라진 후 3막에 가서야 다시 등장하며, 검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서(E 13) 『스티븐 히어로』의 창녀, ‘검은 밀짚 모자를 쓴 여자(SH 189)’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그녀가 리차드 로우언(Richard Rowan)과 맺고 있는 관계는 이러한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버즈 양은 게이브리얼 콘로이(Gabriel Conroy)와 대학 동기인데다 교사이기도 하지만(D 188) 편협한 민족주의로 무장된 공격적인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지적인 여성에 대한 조이

스의 거부감을 대변하는 인물처럼 제시되어 있다.

조이스가 지적인 여성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하류층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류층 여성으로는 “진흙(Clay)”의 갱생원 세탁부들과 “두 신사(Two Gallants)”의 허드렛일 하녀, 그리고 “죽은 사람들”的 하녀 릴리(Lily) 등이 있다. 이들은 등장인물로서 성격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특히, 허드렛일 하녀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기도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여성 인물들의 묘사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파악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그의 아내 노라 바너클(Nora Barnacle)이 ‘제 남편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Ellmann 629)’라고 한 말이 암시하는 대로, 그가 여성을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묘사 할 능력이 없는 작가일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Scott 1982: 57). 그들의 평가는 그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남성 중심주의적인 여성상을 답습하였다는 기준 비평계 일반의 판단(Henke xii)이 타당함을 다시 확인해 준다.

남성중심주의적인 여성상에 관해서는 샌드러 길버트와 수잔 구바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정의 천사와 육체의 악마라는 형상으로 대별하여 설명하였다(Gilbert 1979: 16-20). 물론, 이 구분은 서구 문화의 전통적인 여성상인 성처녀와 창녀의 형상에 각각 상응한다. 엘만은 조이스가 이 구분에 따라 여성 인물들을 묘사하였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우선, 그는 성처녀의 형상에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았다. 그래서 그는 창녀들에게 갔다가는, 후일 노라에게 용서를 구할 때 옛날의 죄를 되풀이하여 들려 주곤 했던 것처럼 성처녀에게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가 그 두 이미지를 혼동하지 않고 대신에 그것들을 몹시 애석한 듯 구분해서는 서로 대립되게 하여 자기 마음 속에서 대극점을 이루게 했

다는 사실은 새롭다..... 그는 『율리시즈』에서 몰리 블룸에게 여성성의 성적인 측면을, 『феани간의 경야』에서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게는 모성적인 측면을 각각 부여하였다. (Ellmann 294-95)

For one thing, in the figure of the Virgin he had found a mother image which he cherished. He had gone to prostitutes and then prayed to the Virgin as later he would drum up old sins with which to demand Nora's forgiveness.... The novelty lay in his declining to confuse the two images and instead holding them remorsefully apart, opposing them to each other so that they became the poles in his mind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 he apportioned womanhood in its sexual aspect to Molly Bloom, and in its maternal aspect to Anna Livia Plurabelle.

그런데 이 두 형태의 구분은 남성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에 따라 여성을 평가하던 당시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조이스가 자신의 여성 인물들을 그 구분에 맞추어 묘사했다면 그는 여지없는 남성중심주의적 작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길버트와 구바는 그를 남성중심주의 작가로 단정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 구분에 따라 그의 여성 인물들을 분류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비롯한 기존 비평계 일반이 그의 여성관을 남성중심주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분은 그의 남성중심주의적 ‘편견’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길버트와 구바는, 남성을 가정의 수장이자 여성의 머리로 정의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가 그러한 형상들로만 파악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보전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지 않는 여

성은 저항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순응하는 여성은 천사로 추앙받게 된다. 육체의 악마와 가정의 천사는 각각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자와 순응자에게 부여되는 형상인 것이다.

그들의 설명을 따를 때, 육체의 악마²⁾로 규정될 수 있는 여성은 몰리 블룸이다. 그녀는 남성중심 사회의 지배원칙을 오히려 전복하며 산다. 그녀는 디지(Deasy) 교장의 부인처럼 호텔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수프를 던질 만큼(*U 109*) 성미가 급하지는 않지만, 남성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느질을 싫어하는 것(*U 149*)은 물론이고 집안의 정리와 정돈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는 침대에서 남편으로부터 아침식사 수발을 받으면서도 마실 차가 늦는 것을 타박하는(*U 51-52*) 등 남성을 능욕하며 남성을 지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충실햄 여성상인 페넬러피(Penelope)의 형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 형상의 명칭이 암시하는 대로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가 아침에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식사 수발까지 시키고는, 직장 동료이자 정부인 보일란(Boylan)과의 밀회를 예감하면서 한부(閑婦)의 게으름 속을 뒤척이다 오

- 2) 이 형상의 명칭은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다. 그 이유는 도덕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적 죄악으로 매도하는 것만큼 편리하게 저항세력을 척출해 내는 방도가 달리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관행은 마녀사냥에서 그 전형적인 유례를 찾을 수 있는데, 중세 말기에 자주 벌어졌던 마녀사냥은 당시의 남성중심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건 마녀로 규정된 여성에게는 성적인 죄악의 혐의를 씌웠었다(Clark 116).
- 3) 초기의 조이스 비평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역할을 원형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몰리는 대모신(大母神: Gaea-Tellus, the Great Mother)이나 지모신(地母神: earth-goddess) 혹은 '자연의 과정을 대변하는 상징'이나 '음(Jung)이 말한 아нима(Anima)'로 묘사된 것으로 이해되었다(Henke xii 참고).

후 4시에 자신의 침대에서 간통을 한 것은 그녀의 육체의 악마적 속성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그녀는 대지의 여신 형상³⁾으로 침대에 누워 있기는 해도(*U 606*) 생명력의 화신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그녀의 애인 목록(*U 601-2*)이 말해 주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Unkeless 150*)의 인상이 더 크게 부각된다. 그러므로 그녀가 여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의 동물계를 지배하는(Kenner 262)’ 여신일 것이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성중심 사회가 비이성과 혼란의 상황을 유발시키는 위험스런 존재로 규정한 여성상(*Kaplan 172*)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우선 그녀는 ‘지성적인’ 남성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비이성의 상징으로 간주될 만한 소지를 보인다. 그녀는 윤회(*metempsychosis*)를 ‘멧 힘 파이크 호시스(Met him pike hoses)’로 잘못 발음하였고 실제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이크 집에서 그를 만났다’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집에 있다니. 그게 누구죠?(Who's he when he's at home?)”라고 엉뚱하게 반문하였다(*U 52*).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 블룸의 설명을 듣고서도 나중에는 ‘속에 호스를 달고 있는 물건을 만났다(*met something with hoses in it, U 620*)’ 정도로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구멍이 셋이어서(*U 234*)’ 지성이 새어 버린 존재로 간주하는 통념을 정당화시켜 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길버트와 구바는 조이스가 이 장면에서 여성을 남성의 지성을 그저 입발림으로나 묘사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고 비판하였다(Gilbert 1988: 232). 그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그녀의 내면 독백이 구두점 없이 제시된 것도 여성을 비논리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하는(*Unkeless 155*) 장치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극히 비이성적인 존재로 보이는 몰리는 비논리적인 소유욕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그녀는 세상이 쪼개지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해도 우선적으로 최소한 두 벌의 다른 슈미즈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였다(*U 617*). 그녀는 순회 공연을 다니는 가수로서 자신의 빈한한 처지가 싫었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을 파는 상점들을 혐오하기도 했다(*U 619*). 이러한 몰리를, 소비 행태를 통해 자신의 역동적인 삶을 구가하는 존재로 보려는 비평적 시도 (*Wicke 749-64*)가 있었으나, 그녀가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

몰리에 대한 이러한 묘사만을 보더라도 조이스는 여성을 혐오하는 작가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여성은 비하하는 듯한 이같은 태도는 다른 여성 인물들의 묘사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특히 부정한 아내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그가 육체의 악마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는 콘미(Conmi) 신부의 기억을 통해서 벨브디어(Belvedere) 백작 부인 메어리 로취포트(Mary Rochfort)의 일을 언급하였다. 그녀는 시동생과 간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자궁 내에 정액을 사출한’ 완전한 간통이었는지는 그녀의 의처증 걸린 남편도, 그녀의 고백 성사를 주관한 신부도 알 길이 없다. 물론, 그녀가 간통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죄를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나, 그녀가 야밤의 해변가를 거닐다가 수달이 갑자기 불쑥 튀어 나와도 놀라지 않고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태도에서 그녀의 양심이 마비된 듯한 인상을 받은 콘미 신부는 그녀의 죄과를 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그녀의 간통을 폭력적인 방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U 184*).

이같은 부정한 아내는 스티븐의 세익스피어론에서도 언급된다. 스티븐은 세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정한 아내들의 원형이 그의 아내 앤 해써웨이(Anne Hathaway)라고 설명하였다.

그 설명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열 여덟 살 때 앤에게 겁탈을 당한 이후로 그녀를 기질이 음탕한 여자로 간주하였고, 그녀를 남편이 죽은 후 시동생과 결혼한 거트루드(Gertrude) 왕비로 묘사하거나 『리차드 3세』에서처럼 자신을 정복한 후 뒤이어 막내 동생 리차드도 정복할(Richard the conqueror, third brother, came after William the conquered. U 174) 음탕한 인물로 묘사하였다. 그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 때문에 자신의 묘비석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비문(Gifford 201 참고)을 작성하여 사후에 이러한 아내와 합장하지 말도록(U 174) 조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부정한 아내들의 모습은 스티븐에 의해 이론적인 위상 까지 갖게 된 데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하나의 모티프로까지 가능한다. 스티븐은 데이빈(Davin)으로부터 들은, 남편이 시누이를 배웅나간 동안에 스스로 없이 여행객을 집안으로 유인하는 촌 아낙의 행위에 역사적인 의미까지 부여하였다.

그 이야기 속의 그 여성의 모습은 … 그녀와 그 자신의 종족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즉 어둡고 비밀스러우며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서는 뻔뻔한 한 여성의 눈짓과 목소리와 몸짓을 빌려 낯선 사람을 자기 침대로 불러 들이는 박쥐 같은 인간이다. (PA 183)

[The] figure of the woman in the story stood forth … as a type of her race and his own, a batlike soul waking to the consciousness of itself in darkness and secrecy and loneliness and, through the eyes and voice and gesture of a woman without guile, calling the stranger to her bed.

촌아낙이 낯선 사람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들이는 것은 동족이 영국을 불러 들여 조국을 정복하게 했던 역사의 과정을 환기시킨

다. 스티븐은 동족을 영국의 첨(U 12)이요 조국의 부정한 아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묘사하고 그것을 조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활용한 사례는 조이스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조이스가 묘사한 여성에게서는 지성적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육체적이며 물욕에 사로잡힌 모습만이 부각되며 특히,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모습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는 육체의 악마로서의 여성의 존재에 관련된 당시 사회의 통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육체의 악마와는 상반되는 형상의 여성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성관을 가진 작가가 아님을 증명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형상은 남성중심 사회의 기준에 순응하는 여성에게 부여 되므로 시각만 달랐을 뿐 결국 남성중심주의를 선양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그 형상의 여성을 제시하는 것은, 길버트와 구바도 지적하였지만, 여성을 구속하려는 남성중심 사회의 술수를 실행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남성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은 교황 리오우(Leo) 13세가 규정한 적이 있다. 그의 교서에 따르면, “여성이 그들의 가사에 전념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에 맞는 일이며,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정절을 지킬 수 있고 자녀의 훌륭한 양육과 가정의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Fairhall 84; Brown 99 참고).” 그렇다면 여성은 가정의 천사가 될 때에만 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가정의 일에 충실하고 가정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하여야만 육체의 악마로 배척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천사 형상에 적합한 인물은 거티(Gerty)이다. 그녀는 가사는 물론 그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규준을 성실하

게 따르므로 구원의 천사로 불리며 성모 마리아와 동일시 (Hodgart 108)되기도 한다.

거티는 보증할 만한 훌륭한 딸이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대리자 이자 금값을 할 만한 가슴을 가진 구원의 천사를 꼭 닮았다. (U 291)

A sterling good daughter was Gerty just like a second mother in the house, a ministering angel too with a little heart worth its weight in gold.

그녀가 구원의 천사로서 생활해 나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 되지는 않았지만, 이블린(Eveline)과, 스티븐의 누이인 매기 (Maggy)를 살펴 보면 그녀의 행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여성이 집안에 없으면 그 가정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의 중론일 것은 자명하다. 블룸이 딜론(Dillon)의 경매장 밖에서 스티븐의 여동생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집안의 가구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그의 집안이 몰락한 것이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고(U 124) 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U 640), 이것이 그 사회에 일반화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남성 중심 사회의 축도로 본다면, 거티처럼 남성중심 사회가 세운 기준을 수행하는 ‘여성다운 여성(U 293)’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칭송’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이블린은 아버지와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한 탈출을 포기하였고, 매기는 수녀가 되려는 서원을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루었다. 그들

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인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힘겨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보면, 가정의 천사 이데올로기가 결국 여성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형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사나 부리는 무책임한 남편과 몰락하는 가계를 짊어지고 살면서도 아들의 학비를 꼬박꼬박 부쳐 주었던 스티븐의 어머니는 그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여성상의 표본이다. 따라서 가정의 천사는 사랑의 힘으로 남성중심 사회를 지지하며 결과적으로 희생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여성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남성이 정해 놓은 이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한 교황의 말에서도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이스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 인물들을 육체의 악마로나 가정의 천사로만 묘사했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여지없이 그 당시의 사회 관념을 따르는 인습적인 작가이다. 그는 여성을 사악한 존재로 단정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전횡적인 작가임과 동시에, 길버트와 구바가 그 허구성을 지적한, 자애롭고 유약한 존재로서의 형상을 찬양하는 가부장적인 작가인 것이다. 더구나 그가 어느 한 쪽의 성을 편들지 않고 두루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평자들도 여성에 대한 그의 공감이 그것에 모순되게 언급된 여성 인물들의 나약성과 위선적 성향 때문에 손상을 받으므로 그가 사실은 남성 인물들에게 더 공감적이라고 말하는 사실(Walzl 53)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여성혐오적 성향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가 직접 표명한 발언은 사실의 기록이라는 명목 때문에 이같이 추정된 그의 여성관을 더욱 공고히 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인물 묘사의 이중성과 전기 기록의 재검토

조이스를 여성혐오자라고 단정하는 이같은 주장들은 전기의 기록이나 여성 인물들의 묘사에서 드러나는 적절해 보이는 사례들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여성관을 이같이 단정하기에는 그 판단과 상치되는 요소들이 역시 그의 인물 묘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몰리가 육체의 악마로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한 여성상으로도 그려지고 있으며, 거티가 가정의 천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몰리같은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이스를 남성중심 사회의 인습적인 작가로 단정하는 주장을 반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가 몰리를 육체의 악마로 규정하였다면, 그녀가 거티만큼 여성적인 자태를 갖고 있었고 가정의 천사가 될 소성을 충분히 보이는 인물이었던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 관한 묘사를 세밀히 검토해 보면, 그녀가 자신의 상념 속에서 사람들과 인생과 전 세계를 수용하고 있었고, 피넬러피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Fairhall 184-85). 그리고 비록 블룸이 요리를 하는 장면이 부각되어 제시되기는 했어도 그녀가 자신의 ‘여성적인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Unkeless 151). 그녀는 딸 밀리(Milly)가 입은 자켓의 단추를 달아 주었고 갑자 사오기가 싫다고 말대꾸를 하자 때려서 가르치기도 했으며, 블룸이 아끼지 않고 부어 마시던 차도 아껴 마시는 등 가사에 있어서도 사려깊은 여성의 모습을 읽지는 않고 있었다(U 631-32).⁴⁾

한편, 가정의 천사로 인정할 만한 거티는 창녀, 즉 유혹자의 모습을 내보인다. 그녀는 남성을 유혹하며 파멸로 이끄는 전형적인 요부의 속성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 있기도 한 것이다. 인종하며 회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가정의 천사가 육체의 악마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그녀가 그 사회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이스가 그 당시의 관념을 따랐다면 이러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상반되는 요소가 공존하는 이러한 묘사로 미루어 보건대, 조이스는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를 육체의 악마나 가정의 천사로 구분하는 관행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여성에게 그 두 가지 형상을 모두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엘만의 지적과는 반대로 ‘그 두 이미지를 혼동하였다.’ 이것은 그가 세계를 역설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면서 양가병존적인(ambivalent) 표현을 주로 구사하였던 태도의 산물이다. 이 태도는 성적 이종동질주의(sexual dimorphism)로 설명되기도 한다(Brown 96).

몰리와 거티 이외의 여성 인물들에게서도 이같은 이중적인 형상의 묘사가 발견된다. “진흙”의 마리아는 평화의 사도로 인정받으면서도 생긴 모습이 마녀를 연상시켰다(Maria was a very, very small person indeed but she had a very long nose and a very long chin. D 99). 스티븐이 지옥 설교를 듣고서 고해를 하고 난

4) 물론,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서 보인 그녀의 태도가 대낮에 벌인 간통이라는 육체의 악마적 행위를 상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녀가 간통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고찰해 보면 그녀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블룸은 ‘경작 가능한’ 그녀를 ‘10년 5개월 18일 동안(U 605)’ 들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간통은 남성의 외도는 용인되면서 여성의 욕구는 방치되고만 있는 본능의 사회적 구도를 전복시키는 의미도 있다. 그녀는 블룸의 미심쩍은 행실을 알고 있었고 — 실제로 그는 다른 여성과의 밀회를 시도하고 있다 — 창녀와 잔 뒤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선원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U 639).

후 보게 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창녀의 모습과 겹쳐져 있었으며, 특히, 성화에서 성모 마리아가 기도하는 모습은 ‘막 기절하려는 사람처럼 손을 벌려 든 채 입술과 눈을 가늘게 연 열락의 형상(PA 150)’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빈을 유혹한 촌 아낙의 모습에는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었다. 이 외에 에머, 스티븐의 어머니, 『피네간의 경야』에 등장하는 ALP 등도 시신(詩神)이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갖는 반면에 유혹자나 아들의 의지를 가로막는 그물, 혹은 악몽 등의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다.⁵⁾

이같은 이중동질적 묘사는 조이스가 이분법적인 구분을 답습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 구분의 경계를 흐려 스스로 ‘복합물의 유입자(Bringer of Plurabilities, FW 104.02)’가 된 작가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그를 이분법적인 사고를 공격한 해체주의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Lawrence 242). 어쨌든, 이같은 그의 표현 전략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성은 그 사회의 타자로 규정하는 남성중심주의적 작가는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서구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버트와 구바가 여성의 해방적 몸부림이라고 칭한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도 구사해 보였다. 여성적 글쓰기

5) 그가 여성을 이중적인 형상으로 그린 것은 남성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세계를 역설적인 시각으로 바라 봄으로써 세계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려 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블룸을 묘사하면서 아내에게 무른 ‘폴디(Poldy)’의 면모와 바람둥이 헨리 플라워(Henry Flower)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주었다. 그리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콘로이가 남성적인 자신감을 여성에게 드러내 보이는 한편으로, 하녀 럴리, 아이버즈 양,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내몰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자기인식에 이르게 되도록 그렸다. 이 장면에서는 조이스가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만 묘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란 여성 작가가 여성에게 억압적인 남성중심 사회의 질서를 전복하고 싶은 욕구를, 미친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성취하는 문체상의 전략을 일컫는다.⁶⁾ 굳이 미친 인물을 동원하는 이유는 그 인물의 행동이 미친 짓이므로 남성중심 사회의 겹열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글쓰기의 전략을 구사한 태도에서는 그가 여성의 해방적 몸짓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억압받는 여성 작가가 아닌 데다 길버트와 구바가 지적한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광란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여성 작가 자체의 해방적 의도를 대변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티의 행적의 묘사에 활용된 그러한 글쓰기의 전략은 그가 그 사회에서 여성의 해방적 욕구가 우회적으로 표출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거티는 옆 집 대학생 레기 와일리(Reggy Wylie)와의 만남을 소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그러한 욕망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이러한 질서를 그 사회가 자신에게 가하는 억압으로 규정하였고 그 억압의 구도를 허물어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으로서는 미친 짓에 해당하는 일을 꾸몄다. 그녀의 ‘미친 짓’은 자신의 은밀한 폐

6) 길버트와 구바는 여성 작가들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사는 여성의 해방적 몸부림을 ‘광란을 통한 도피’로 표현하였다고 말하였다(Gilbert 1979: 341). 그들은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를 예로 들면서, 그녀가 ‘다락방의 미친 여자’를 통해 가부장 사회의 상징인 쏜필드(Thornfield) 저택을 불사른 것은 여성 작가 자신이 여성 억압의 질곡에 대해 해원(解怨)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 해방적 몸부림을 미친 여자를 통해서 표현하였던 것은 남성중심 사회의 겹열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으므로 그러한 ‘광란을 통한 도피’가 여성적 글쓰기의 주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티코트 속을 노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행위는 블룸이 노출증이라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간주한 것처럼 그 사회로부터 도전적인 행위로 규정될 만한 소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미친 짓’을 통해 블룸을 유혹하였고 그를 굴복시킴으로써 그가 상징하는 남성적 질서를 사실상 전복하였다.

조이스는 그녀의 행위가 ‘미친 짓’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표현에 있어서도 치밀성을 보였다. 그는 그녀를 묘사하면서 통속적인 여성 작가들이 사용한 문체를 장황하게 이용하였다. 그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남성이 자신을 선택하여 즐겨 주기를 바라며 바닷가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여성이다. 그녀는 가정의 천사가 보일 수 있는 지극히 나약하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묘사를 길버트와 구바는 그의 남성중심적 글쓰기의 전형으로 비판하였지만,⁷⁾ 그녀가 그러한 여성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노출은 한 순간의 ‘미친 짓’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문체를 이용한 것은 여성 작가들의 글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해방적 몸부림을 은폐하려는 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티는 블룸으로 하여금 그녀 자신에 대한 욕구로 안달하게 함

7) 길버트와 구바는 조이스가 거티를 묘사하면서 (*U 285-86*) 빅토리아조 여성 잡지 기고가들의 문체를 빗대어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Gilbert 1988: 146). 그들은 그가 “태양신의 황소들(The Oxen of the Sun)” 장에서는 남성중심적인 글쓰기의 변용을 즐기며 찬양하면서도 거티를 묘사하는 글의 문제는 여성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그를 가학적인 여성혐오자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남성 작가들의 남성중심주의적 글쓰기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비평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Gilbert 1979: 7)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당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시도한 문체의 회화는 성적 차별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남성 작가들의 글도 작품의 도처에서 회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여성 작가들의 해방적 몸부림도 구현해 보였기 때문이다.

으로써 자기에게 굴복할 것을 유도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자신을 통제하며 유혹을 거부하였지만 곧 백열같은 열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자위행위의 절정에 사출을 하였다(*U 299-300*). 그녀는 남성에게서 그의 기운을 모두 빨아내 버림(*U 308*)으로써 그를 굴복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남성중심 사회를 전복하였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였다.⁸⁾

그녀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그녀가 이국적이며 지성적으로 보이는(*U 293*) 블룸을 자신의 반란의 희생물로 지목하였던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녀가 블룸의 외관에 의미를 둔 것은 그러한 미려한 외관을 가진 신사여야만 여성에게 승리자연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대변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해변가에서 우연히 마주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남성을 지목한 것도 그 사람의 개별성보다는 남성으로서의 대표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를 굴복시키는 것은 곧 남성중심 사회 전체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성은 가정 안에 구속시켜 놓으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남성중심 사회는 여성이 스스로를 가지고 은폐하도록 하는 천사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거티의 노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성중심 사회의 지배원리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녀는 남성중심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생활해 왔으므로

8) 이 일은 블룸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조이스는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Power 32*). 물론 들 사이에 육체적인 교섭은 없었다. 그러나 거티는 자신의 페티코트를 들추었고 블룸의 반응을 보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그에게 손까지 흔들며 갔으므로 전적으로 그의 상상 속의 일이라고만 간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욕구를 실행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자회 불꽃놀이의 불꽃이 터지는 장면의 암시를 따르면, 그들은 사실상 간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사회에서 ‘깨끗한’ 존재였으나,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고(I'm all clean come and dirty me. U 302) 실제로 노출을 통해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위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깨끗한’ 생활, 곧 남성의 기준에 맞는 생활의 질서를 전복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조이스가 양가병존적인 묘사를 구사하고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까지 활용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비난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여성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전기에 기록된 그의 직접적인 발언과 행적을 검토해 보면, 그것들 또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만 해석되어 온 측면이 많음이 드러난다. 그의 발언과 행적의 맥락을 살펴 볼 때 그것을 그의 여성혐오와 관련지을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지적인 여성을 싫어한다는 그의 발언은 그의 여성혐오적 성향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 속에 프로이트와 용의 흔적이 많은 사실을 인정하라는 메어리 칼럼의 말에 자극받아 그가 반사적으로 내뱉은 말이다.⁹⁾ 그 발언은 자신의 손상당한 자존심을 보상하려는 의도에서 표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발언을 여성에 대한 그의 진지한 생각이 드러난 증거로 볼 수는 없다(Scott 1984: 117).

그리고 평생동안 그가 지적인 여성의 열렬한 도움을 받았고 그 사실을 또한 인정하기도 했던 점(Ellmann 634)도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 도외시될 수 없는 요소이다. 그가

9) 조이스는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당돌한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질문을 싫어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말을 듣자, ‘입을 을 굳게 다물고 성가시다는 듯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Ellmann 634).’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조이스의 여성관을 평가하면 비평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무시하였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출판 문제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해리엇 쇼 위버(Harriet Shaw Weaver) 여사의 도움은 결정적 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지 『에고이스트(The Egoist)』에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연재해서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잡지는 여성운동 잡지인 『프리우먼(The Freewoman)』(1922-13)과 『뉴 프리우먼(The New Freewoman)』(1913) 이 그 전신이었다(Brown 90). 그리고 그녀 이외에도 그에게 물심 양면으로 후원을 해 준 사람들 중에는 지적인 여성이 많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전기에서는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적인 여성은 싫어한 이유와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가 지적인 여성은 싫어하였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우월의식이 침해당하는 것에 몹시 예민하였던 그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본고의 초두에 언급된 대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여성의 업적을 이루는 것을 못마땅해 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스티븐의 행적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¹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

10) 스티븐은 초등학교 시절에 플레밍(Fleming)과 함께 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PA 48-53). 그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에도 화가 났지만, 반에서 수위를 다투는 자신과 플레밍 같은 지진아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에 더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플레밍도 자신과 똑같이 아팠을 것이라고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아이들에게 숨기려는 데 더 힘을 기울였다. 플레밍이 오히려 스티븐이 받은 체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콘미 신부에게 가서 항변할 것을 종용한 것을 보면, 그가 지닌 우월의식은 아동들의 일반적인 심리로만 간주해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글린(Glynn)이 아일랜드 현대 문학을 논의하자고 접근했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글린이 바이런, 셀리, 워즈워스, 코울리지, 키츠, 테니슨, 러스킨, 뉴먼, 카일라일, 머콜리 등 (SH 148)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을 때는 꾀곤해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시

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의 여성혐오적 성향의 일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에머를 제대로 묘사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그의 대학 동기로서 학업 성취에 있어 그보다 뛰어나며 여성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해너 쉬히(Hanna Sheehy)를 모델로 하였던 것(Scott 1982: 62)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지적인 여성의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의 여성혐오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당시에 ‘4류’ 대학 정도에나 갈 수 있었으므로(Scott 1982: 59)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해너 쉬히는 예외였지만 여성에게는 고급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대학 생활 자체도 여성의 수 강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는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기숙사에서는 통금을 실시하는 등 매우 억압적이었다. 이처럼 당시에는 여성의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그렇다면, 『스티븐 히어로』를 개작하면서 조이스가 에머를 ‘E—C—’로 감쇄시켜 버린 것도 당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습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를 스티븐의 포일(foil)로서 생동감 있게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가 있다(Scott 1982: 77). 물론,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스티븐의 내적 갈등과 예술가로서의 성장 과정이 주요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과정을 부각시켜 줄 대상으로서 개발되어 있지도 않은 여성을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기도 했을 것이다.

에머는 자신의 인습적인 태도 때문에 스티븐으로부터 심지어

창녀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당하기도 했다(*The woman in the black straw hat gave something before she sold her body to the State. Emma will sell herself to the State but give nothing. SH 203*). 그 판단은 그가 점점 몰락해 가는 집안 형편의 압박과 사춘기 시절의 좌절감을 성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던 태도(*SH 162*)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을 성적으로 자극하기도 했고(*SH 47*) ‘젊다는 사실과 여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는 듯(*SH 197*)’ 보였던 그녀에 대해서 욕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암시와 요구를 계속 묵살하던 그녀가 여성의 해방을 믿느냐고 질문했을 때 ‘분명히 그래(*SH 153*)’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젊은 폐미니스트(*SH 42*)’ 맥칸(McCann)과 진지하게 입센(Ibsen)을 논의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여성해방을 성적인 의도의 표출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처럼 솔선하여 인습을 깨뜨렸는데도 그녀가 교회의 인습적인 가치관만을 고수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스의 작품에 부정한 아내의 형상이 모티프로서 등장하는 것은 그의 여성혐오적 성향의 표현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정 망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순결에 관한 의혹 때문에 한동안 시달렸었다. 한때 자신의 친구였던 빈센트 코스그레이브(Vincent Cosgrave)와 자신의 아내 사이의 혼전 관계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떠돌았던 것이다(Ellmann 279-80). 1909년 8월의 편지에 써어진 “조지가 내 아들 맞아? (*Letters II, 232*)”의 대목에서는 그 의혹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후일 그 소문은 코스그레이브의 질투에 의한 거짓말로 판명되었으나 당시에 그가 느꼈던 배신감은 알콜중독의 영향으로(Hodgart 38)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었다. 따라서 부정한 아내의 모티프는 그의 망상적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일 수가 있는 것이다.

3. 여성의 현실에 관한 조이스의 사회역사적 상상력

조이스의 양가병존적 세계관과 여성의 해방을 희구하는 문체상의 전략, 그리고 전기상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여성혐오자라기보다 오히려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작가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는 여성을 이 종동질적으로 묘사하여 그 두 가지 형상이 모두 남성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아이덴티티임을 밝혔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는 육체의 악마든 가정의 천사든, 여성이라면 항상 사슬에 묶여서(*U 639*) 그 사회 구조를 섬기며 남성의 전횡에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U 640*)¹¹⁾ 그 사회의 질서에도 전전하였던 몰리나, ‘미친 짓’을 통해 억압적 구조를 전복시켜 보려고 한 거티도 결국은 이블린을 비롯한 보통 여성처럼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그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에 여성이 굴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고정불변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 사실은 “써시(Circe)” 장에서 성전환에도 불구하고 남성적 새디즘과 여성적 매조키즘이 그대로 적용되는(Fairhall 191) 장면의 묘사를 통해 제시된다. 그 장에서 포주인 벨라(Bella)는 남성으로 변하자 여성이 된 블룸을 때리고 능욕하는데(*U 432-44*). 이 장면은 그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역전될 수 없는 구도로

11) 몰리의 생각은 1960년대 페미니즘적 발상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급진적이었다(Scott 1987: xiii).

고정되어 있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사실은 거티의 행적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조이스는 그녀의 ‘미친 짓’에 남성중심 사회의 억압 구조를 전복하는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그는 그 전복적 행위가 그 사회의 겸열을 의식적으로 우회했을 때 가능한 조처임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블룸에 대한 그녀의 공격도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학적인 대응으로 일관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는 결국 그 사회의 지배 구조가 여전히 강고함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죄의식과 피곤함(*U 312*)을 느끼는 블룸을 뒤로 하고 거티는 손을 흔들며 갔지만 그를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그에게서 남성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남성임을 출루하도록 유도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럽혀’ 졌다. 더구나 그녀가 남성다운 남성이 라고 생각해서 정복의 대상으로 삼은 블룸은 사실상 그 사회에서 반풀이, 남녀추니(*U 402*) 정도의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으므로 그녀의 선택은 그 사회의 피지배 계층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당연히 오편을 하게 되는 상황을 드러내 보여 줄 따름이다.

그래서 조이스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혼자 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 절름발이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블룸을 ‘정복’ 하였던 거티가 실제로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 (*She's lame! Oi, U 301*)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블룸이 그녀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Glad I didn't know it when she was on show. U 301*) 점은, 여성이 남성중심 사회의 기준에 맞게 다소곳이 앓아 있을 때는 남성의 완상과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어섰을 때는 그의 욕구를 사그라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당시의 사회 관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대낮에 벌인 그녀의 간통은 남편의 외도를 용납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 자신의 성적인 자유를 선언하는 반항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행위로도 자신의 존재의 자주성을 보장하거나 남성과 동등한 개체로서의 위상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녀의 간통은 사실 보일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간통을 한 그녀가 남편의 미심쩍은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와의 종류계층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점은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의 정체를 그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10여년이나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객체로서 희생될 뿐이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로버트와 리차드가 베짜(Bertha)를 물건 취급(*E* 78-79; 92)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드러나 있듯이 본질적으로 ‘굴레에 매인 물건(*U* 436)’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자유는 국가의 정신적 재산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몸만 국가의 재산으로 관리된다(*SH* 202). 그들은 ‘살아있는 피리(*U* 234)’와 같은 존재로서 남성이 부는 데따라 크게 혹은 부드럽게 소리를 내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waiting, always waiting to be asked, U* 288). 그 사회에서 여성의 욕구는 ‘방만한 남성의 주먹이 드러내는 시종여일 인정미 없는 태도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쉽게 포기당했다(*FW* 123.9-10).’ 여성의 자신의 욕

구를 표출할 수 있는 경로는 백일몽에 잠기거나 은밀한 거소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해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여성은 저항의 몸짓을 보이기는 해도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영원한 타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천사인 거티마저도 그 사회의 억압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은 여성의 타자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해변에 앉아 몽상을 쳤던 그녀는 마침 성인 남자들의 금주를 위한 피정이 진행 중이던 해변가 교회에서 훌러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주사를 부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술취한 아버지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그늘지고 침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 그녀는 가정의 천사로서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던 이블린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D 38*) 때문에 남동생들과는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고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적 위협에 떨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절을 베풀기 위해 내미는 것이 아닌 남성의 손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U 290*).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이같이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로서도 여성에게는 폭력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이다. 덩치가 크고 위압적이었던 무니 여사(Mrs. Mooney)가 키가 작고 모주꾼이었던 남편을 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성의 존재가 외형적인 의미로만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이스는 이같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의 전횡적인 행위들도 적시하였다. 여성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은 남성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디지 교장은 전횡적인 남성의 전형을 보여 준다. 교장은 인류 역사의 질곡과 조국의 고통이 모두 여성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믿

을 만큼 여성혐오적이다.

한 여자가 죄를 세상에 들여 왔지. 행실이 나쁜 여자 헬렌. 그 메넬레어스의 도망친 아내 때문에 10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와 전쟁을 했고. 한 부정한 아내는 이 곳 우리 땅으로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들어 오게 했어. 맥머러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 브레프니 대공 오러크 때문이지.¹²⁾ 역시 또 한 여자가 파넬을 몰락시켰고. (*U 29*)

A woman brought sin into the world. For a woman who was no better than she should be, Helen, the runaway wife of Menelaus, ten years the Greek made war on Troy. A faithless wife first brought the strangers to our shore here, MacMurrough's wife and her leman O'Rourke, prince of Breffni. A woman too brought Parnell low.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브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 왔고 헬렌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는 10년 동안 전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영국의 정복은 ‘한 부정한 아내’ 더보길라 때문에 초래되었고, ‘무관의 제왕(*U 534*)’ 파넬의 몰락은 캐서린 오셰이(Katharine O'Shea) 부인의 부정 때문에 야기되었다. 그는 아일랜드 역사 속에 나타난 더보길라와 오셰이 부인의 행위를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이브와 헬렌이 초래한 일들처럼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된 데에는 맥머러의 우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파넬의 몰락은 오셰이 대위의 파

12) 디지 교장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된 사건의 주인물들을 혼동하고 있다. 역사상으로는 맥머러가 브레프니 대공의 아내 더보길라(Dervorgilla)를 납치하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되었으므로 ‘O'Rourke's wife and her leman MacMurrough’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렴치한 행위와 파넬의 실수 때문에 초래되었다.¹³⁾ 더보길라와 오세이 부인도 그 사건들에 개입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교장은 그 사건들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술집에 모인 남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교장을 비롯하여 소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 남자들은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그 여자들의 도덕적 취약성을 부각시켜 역사 질곡의 책임 소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U 266*). 조이스는 스티븐과 블룸을 통해 이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스티븐은 디지 교장의 발언에서 허망함을 느끼고 조롱하였으며(*U 29*) 블룸은 술집의 남자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다가 봉변을 당할 뻔 하였다(*U 280-83*).

이처럼 여성을 직접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여성에게 역압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블룸이 아내를 장기간 방치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이 초래되었듯이 남편의 무책임은 앞서 조이스의 여성혐오적 성향의 일단으로 해석된 아내의 부정의 근본 동인인 것이다. 무니 여사가 경영하는 하숙집이 야릇한 소문에 휩싸이게 된 것(*D 66*)도 사실은 무니 씨의 주사와 방만한 짓거리 때문이었다. 여성이 혼자서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니 여사가 포주를 뜻하는 ‘마담(*D 62*)’으로 불리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스티븐의 세익스피어론에도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스티븐은 아내의 부정을 논급한 그 이론에서 세익스피어의

13) 파넬과 오세이 부인과의 관계는 아일랜드 정가에서 ‘공공연한 비밀(*U 531*)’ 이었고 그녀의 남편에게는 지역구가 배당되어 있었다. 그런데 파넬이 자치제 의안의 상정을 준비하는 중 오세이 대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파넬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Gifford 와 O'Brien을 참고할 것.

부정과 남편으로서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1592년부터 1613년까지 20년 동안 그는 고향을 떠나 런던에서 생활하였다. 그 기간 동안 아내를 방치해 놓고서 그는 싸구려 창녀로부터 귀부인에 이르기까지 여성편력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년에 600 파운드라는 수입을 얻었으나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목동으로부터 40 실링의 돈을 벌려야 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U 165-66*).

스티븐은 셰익스피어가 아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열 여덟 살에 아내에게 겁탈을 당할 때 자신이 그 과정을 방조했던 것 때문에 갖게 된 죄의식을 벗기 위하여 그 죄의식을 심어 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도 관계되어서 생긴 죄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내를 방치했다면, 그는 자신의 무책임을 호도하려는 비열한이며 남성의 전횡을 대변하는 인물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의 묘사를 미루어 볼 때, 조이스는 남성중심 사회가 남성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여성이 희생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 심정으로는 현재의 전체 사회 질서와 기독교 — 가정, 알려진 덕목들, 생활 계층과 종교적 교의 등을 싫어하오. 내가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을 좋아할 수 있었겠소? … 어머니는, 생각컨대,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서서히 죽어 가셨지요.... 관에 누운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 나는 내가 희생자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느꼈고 그녀를 희생자로 만든 그 체제를 저주했었소. (*Letters II*, 48)

My mind rejects the whole present social order and Christianity — home, the recognized virtues, classes of life and religious doctrines. How could I like the idea of home? … My mother was slowly killed, I think, by my father's ill-treatment.... When I looked on her face as she lay in her coffin … I understood that I was looking on the face of a victim and I cursed the system which had made her a victim.

그는 자식도 아홉, 열쯤 되고 몇 명은 죽기도 한(PA 241)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의 고통과, 자식들은 많은데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가계의 곤란함을, 무책임한 남편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행한 폭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에서 희생자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한 폭력과 희생의 체제인 가정이라는 제도를 저주하였다. 그가 보기엔 이러한 가정은 여성을 천사가 아니라 희생자로 만드는 공간이었다.

가정은 남성중심 사회의 축도이기도 하므로 조이스의 어머니의 상황은 여성 전체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다. 여성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이같은 인식은 당시 더블린에서 살았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분석한 월즐(Florence L. Walzl) 교수의 비판적인 글(Walzl 31-56)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여성은 마치 도란(Bob Doran) 씨가 느낀 바대로 탈출구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난감함(He longed to ascend ... and yet a force pushed him downstairs step by step. D 67-68)만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었다. 남성이 폭군처럼 지배하는 사회(man tyrant, U 635)에서 여성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4. 맷는 말

앞서 거론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조이스가 여성혐오자로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가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억압당하는 상황일 뿐이므로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는 자칫 여성의 억압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작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성을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적합하도록 묘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구분한 형상들을 동시에 강요받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성적 이종동질주의의 글쓰기를 구현하였다. 그러한 형상이 남성중심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반영하며 또한 그것이 여성다면 누구나가 당면하게 되는 현실임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의 전기적 사실에 기초하거나 표면적인 인물 묘사만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여성관을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는 실생활에서나 작품 속에서도 여성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규정한 적이 없었다. 그의 인물 묘사에 나타난 양가병 존적 세계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여성해방운동에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Power 35). 따라서 그를 페미니스트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의 세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태도가 된다(Roughley 123).

한편, 그는 여성의 모습을 이같이 형상에 의존하여 묘사한 점 때문에 그의 리얼리즘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Scott 1987: 61-62). 그러나 여성을 형상에 의존하여 묘사한 사실 자체가 여성의 현실에 대한 그의 리얼한 통찰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는 것은 그의 글쓰기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여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당한 지배를 오히려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여성관은 그의 사회역사적 상상력이 제기하는 사회비판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44.
- Dubliners(1914)*.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 Exiles(1918)*. New York: Penguin Books, 1973.
- Ulysses(1922)*.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Finnegans Wake(1939)*.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66.
- Benstock, Bernard(1977). *James Joyce: The Undiscover'd Country*.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 Brown, Richard(1985).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UP.

- Clark, Elizabeth and Herbert Richardson(1977). *Women and Religion: A Feminist Sourcebook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Harper and Row.
- Ellmann, Richard(1982). *James Joyce*. Rev. Ed. London: OUP.
- Fairhall, James(1993).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UP.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1974).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E.P. Dutton & Co.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1979).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 _____. (1988). *No Man's Land: The Place of the Woman Writer in the Twentieth Century*. Vol. 1. New Haven: Yale UP.
- Henke, Suzette and Elaine Unkeless(1982). *Women in Joyce*.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 Hodgart, Matthew(1978).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KP.
- Kaplan, Cora(1985). "Pandora's Box: Subjectivity, Class and Sexuality in Socialist Feminist Criticism." In *Making a Difference: Feminist Literary Criticism*. Eds. Gayle Greene and Coppelia Kahn. London: Methuen, pp.146-76.
- Kenner, Hugh(1956). *Dublin's Joyce*. New York: Columbia UP.
- Lawrence, Karen(1990). "Joyce and Feminism."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Ed. Derek Attridge. Cambridge: CUP, pp. 237-58.
- O'Brien, Máire and Conor Cruise O'Brien(1985). *A Concise History*

- of Ireland*. 3r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 Power, Arthur(1974).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 Clive Hart. London: Millington.
- Roughley, Alan(1991). *James Joyce & Critical Theory: An Introduction*.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 Scott, Bonnie Kime(1982). "Emma Clery in *Stephen Hero*: A Young Woman Walking Proudly Through the Decayed City." In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pp. 57-81.
- _____(1984). *Joyce and Feminism*.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 _____(1987). *James Joyce*.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 Spencer, Theodore(1944). "Introduction." In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pp. 7-19.
- Unkeless, Elaine(1982). "The Conventional Molly Bloom." In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pp. 150-68.
- Walzl, Florence L(1982). "Dubliners: Women in Irish Society." In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pp. 31-56.
- Wicke, Jennifer(1991). "Who's She When She's At Home?" Molly Bloom and the Work of Consumption." *James Joyce Quarterly*. 28, 4, 749-63.